

“마음·생명 연구소”(Mind & Life Institute, 명예위원장 달라이 라마)는 9월 13-1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캠프리지 시 MIT 공대내 크레스기 강당에서 ‘마음 탐구(Investigating the mind)’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동·서양에서 모인 26명의 지성인들과 전문가들은 1200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과 연관된 현대과학인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제반 문제에 대한 최고 수준의 토론을 나눴다.

13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1987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공개 진행된 제 11차 ‘마음 탐

구’ 학술회의의 개최사에서 “이번 토론을 통해 과학과 불교의 협력과 조화가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과학은 초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걱정스러워 하는 어린이와 같기에, 불교는 이제 그 아이에게 ‘괜찮아, 잘 할 수 있어’라는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찰스 MIT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두뇌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 때 인류의 정신적 행복도 증진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동·서 지성들 맞서 ‘마음탐구’ 학술회의

불교와 과학의 조화 모색



◇9월 13일 캠프리지시 MIT공대 강당에서 열린 제 11차 ‘마음 탐구’ 학술회의는 달라이 라마와 26명의 석학들이 펼친 지성의 대토론 마당이었다.

참석자 반응

마음훈련의 가능성 확인했다

불교와 과학이 마주보는 현장

“이번 대회에서 수행을 통한 마음 훈련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는 리드 대학 심리학과 다니엘 리즈버그 교수는 “이제 우리는 자신의 혜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 캘리포니아 아바야거리 사원 아잔 아마르 스님은 “마음 탐구”는 동서양의 가장 강력한 전통인 불교와 과학이 만나서 상응하는 현장이었다”고 평가했다.

MIT 공대 두뇌 및 인지과학과 낸시 캔워서 교수는 “심리학자와 불교학자들의 마음 탐구 방식의 유사함에 놀랐다”며 “불교와 과학처럼 동떨어진 분야가 서로 만나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에 불교 활용해야”

제1부 주의집중과 인지의 조절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조나단 코헨 교수는 첫 발제에 나서, ‘주의 집중과 인지 제어(Attention and Cognitive control)’의 구체적 예를 들어 심리학 실험 방법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그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지, 주의 집중, 내성 등 심리적 훈련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해 온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알랜 윌러스 산타바버라 연구소장은 티베트 불교의 주의 집중 훈련과 그 목표, 훈련 방법과 평가 방법 등을 소개하며 “사고와 행동의 인지, 조절 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불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마음에 대한 심리학과 불교의 연구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전제하고 사물을 인식, 평가하는 인간의 다단계 심리 불경을 통해 과학자들에게 설명했다.

네발의 매튜 리처드 스님은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에서 다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며 “반면에 수행자들은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런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한다”고 말했다. 또 코헨 교수는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에 불교 수행법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9월 13-14일 MIT공대에서 열린 ‘마음 탐구’ 학술회의의 휴식시간중 책과 논문을 살펴보는 참석자들.

수행하면 시각적 기억력 향상

제2부 심리 이미지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스테판 코슬린 교수는 심리 테스트를 위한 그림을 보여주며 이미지의 기억 과정을 발표했다.

매튜 리처드 스님은 “불교는 이미지를 탐·진·치의 삼독심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며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편견을 버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달라이 라마는 “스님들은 수행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불이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는 수행자도 있다”며 “수행을 통해 인간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개념적 이미지도 강하게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드 대학 심리학과 다니엘 리즈버그 교수는 “이번 토론을 통해 과학적 분석 방법이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자, 아잔 아마르 스님은 “과학이 축적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현대인들이 윤리적인 삶의 해력을 확신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화는 자신의 편견서 비롯

제3부 감정

위스콘신 대학 심리학과 리처드 데이빗슨 교수는 티베트 스님 150명의 뇌를 MRI 촬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명상 상태와 정상 활동 중인 스님의 뇌 상태 비교를 통해, “명상 중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평상시에는 반응이 크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매튜 스님은 화, 공포 등 인간의 감정에 대해 언급하며 “화는 외부 대상 때문이 아니라 나의 편견에서 나오며, 화를 낸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 때문에 내가 감정을 다스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자유는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달라이 라마는 “인간마다 집착에 따라 감정이 다르다. 불교는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개인마다 신체 및 주변 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분노, 파괴, 질투 등 나쁜 감정을 줄여나가고 좋은 감정을 키우는 수행에는 다 같이 ‘자비심’이란 철학적 바탕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마음궁전의 힘없는 왕

제4부 정리와 반성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제롬 카간 교수는 “서구 사회는 오랜 세월 자유를 외쳤지만 지금까지 한계에 부딪힌 것은 그동안 저질러온 악업 때문이다. 윤리 규범을 어기는 순간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윤리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그 자체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윤리”고 강조했다.

조나단 코헨 교수는 “현재까지 서구과학은 인간이 ‘두뇌의 CEO’인 줄 알았다. 오늘 토론을 통해 인간은 ‘아주 불안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 궁전의 힘없는 왕’임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MIT 공대 분자생물학과 에릭 랜더 교수는 “지금 미국인들은

체육관에 가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 50년 후 미국인들은 매일 명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모르 아잔 스님은 “불교는 불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신을 훈련하고 지혜를 밝히는 수행에도 과학자들과의 협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달라이 라마는 폐막사를 통해 “과학이 인간 내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술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며 “과학자와 불자들이 모두 다 같은 인간임을 기억하고 선한 감정을 키우고 악한 감정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또 “멀리 있는 천국이나 열반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불교대학 유치원 불사 모연문

전국 유치원 8,292곳 가운데 불교 유치원은 123곳 뿐.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어린 불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최첨단 최대의 유치원을 짓고자 대구 도심에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12월에 착공할 예정인 "참좋은 유치원" 불사에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동참방법**
- ① 성의껏 대구은행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015-05-003474-2
- ② 백옥부처님 만(萬)분 모시기 (3년 동안 108만원 넣기) 1인 1분 모시며, 천일간 축원 기도해 드립니다. 유치원 5층 법당에 모셔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우학 습掌** TEL. 053)473-5802 www.TVbuddha.co.kr

제 15회 포교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포교를 통하여 불교와 중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처하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5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상일시 : 불기 2547(2003)년 12월 13일(토)
2. 접수기간 : 불기 2547(2003)년 9월 22일(월) ~ 10월 17일(금) 17시까지
3. 추천분야 : 가. 계층포교분야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나. 직능포교분야 : 군, 경찰, 직장직능 등 다. 문화체육포교분야 : 미술, 성보,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라. 사회포교분야 :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마. 매체포교분야 : 방송·언론, 신문, 잡지, 출판, 인터넷 등
4. 구분 및 부상 : 상패 및 상금
 - 포교대상 : 종정상 0명 ●공로상 : 총무원장상 0명 ●원력상 : 포교원장상 0명
5. 구비서류 : 가. 교구본사 주지사님 또는 종단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종단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포교원 설립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나. 포교활동 공적서 <소정양식> 다. 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소정양식>
6. 추천대상 : 추천은 종단소속 모든 기관 및 전 종도(출가, 재가)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에 활동한 자이며 대상 후보자 추천은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활동한 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7.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계종 포교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람여 소정양식은 포교원 홈페이지(www.ibuddhism.org)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 ◆전화: 02)720-7060~3 전송 02)720-7065 담당자: 총무주임 김한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여기에 온 미국인들은 모두 세 부류입니다. 나에 대한 호기심이나 특별한 정 보를 구하거나 나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Nothing).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입니다. 다만 이 자리 에서 나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인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이 라마 설법

14일 미국 동부의 도시 보스턴의 플릿센터. 음악가 나왕 케 축의 티베트 독립과 평화를 기원하는 연주가 끝나고 스님이 노 구를 이끌고 입장하자 야구장의 4만여 시민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오늘 미국인들은 열두 차례나 미 프로농구 챔 피언 시리즈를 제패한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들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 주인공은 달라이 라마였다.

달라이 라마는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법회를 시작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미워하는 것에 이끌리면 충동의 노예 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이 충돌하며 싸울 때가 마음 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꾸준히 실천하고 악한 감정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저 사람도 나처럼

선·악의 감정 충돌할 때가 마음닦기에 가장 좋은 기회

행복하고 싶은 인간임을 기어하고 자비심을 되찾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달라이 라마는 자신 의 유년 시절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의전 충동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과목을 미국 교과 과정에 신설하여 아주 어릴 때부 터 자비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에 ‘대화’ 과목 개설, 어릴때부터 갈등해소 훈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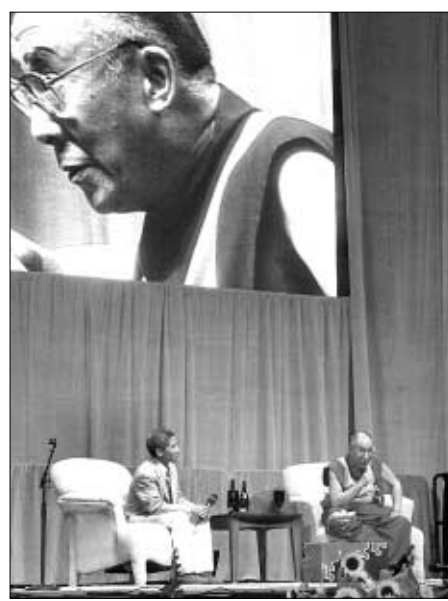
그는 또 미국인들의 소비적인 삶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만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을 충만케 하라”고 당부했다.

달라이 라마는 즉석에서 청중들의 질문에도 답변했다.

“미국이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나요?”란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비심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자비심은 남을 깔보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손해를 주거나 심지어 적이라도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답 했다.

“티베트를 돕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가 원하는 것은 자치입니다. 티베트의 불교와 문화, 전통과 자연 환경은 많은 젊은이들과 세 계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알리고 중국 친구들에게 화합과 자비를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말로 대신했다.



◇9월 14일 달라이 라마의 '보스턴 플릿센터 설법' 모습.



◇아담 잉글, 마음·생명연구소 공동설립자.

마음·생명연구소는

‘마음·생명 연구소’(Mind & Life Institute, www.mindandlife.org)는 불교와 과학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 70년대 이후 계속된 달라이 라마와 서양 과학자의 대 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신경과학자인 프란시스코 바렐 라(Francisco Varela)와 공동 설립자 아담 잉글이 87년 처음 ‘과학과 불교의 만남’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요청했고 달라이 라마가 이를 수용하면서 첫 토론회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 렸다. 연구소는 이 토론회 직후 탄생하게 됐다.

‘마음·생명 연구소’는 87년부터 ‘불교와 인지과학’, ‘불

불교와 과학의 대화증진 위한 단체 87년부터 10여차례 국제 토론회

교와 신경과학’, ‘감정과 건강’, ‘수면 및 꿈과 죽음’, ‘새로 운 물리학과 우주론’ 등을 주제로 10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 다가 올해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코네티컷 주 루이 스티에 위치한 연구소는 토론 내용을 모아 ‘파괴적 감정 (Destructive Emotions)’, <인연(Entanglements)>, <자비의 통찰력(Visions of Compassion)> 등 7권의 책을 간행했다. 연구 소 공동설립자인 아담 잉글 씨는 “이번 대화는 매우 성공적 이었다”며 “내년에 ‘마음과 삶 여를 연구회’를 개설, 젊은 학자들의 동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4일 미 보스턴 셀틱스 홈구장에 참석한 4만여 시민을 상대로 법문하는 달라이 라마.

알렌 윌러스= 인도·스위스서 불교공부 톨텐 진파= 달라이라마 지근서 수행

회의를 빛낸 얼굴들

‘마음 탐구’ 학술회의에서 청중들의 주목을 받은 인물로는 알렌 윌러스 산타 바바라 연구소장과 톨텐 진파 씨가 꼽힌다.

알렌 소장은 학술회의의 모든 세션에 참석, 서구 과학자들에게 불교 사상 및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 번째 세션 참가자들이 지겨운 만큼 용어 문제에 집착하자,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는 말을 인용 하며 과학적 탐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교는 말이 아니라 체험이다”는 의 견을 피력해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 알렌 소장은 인도와 스위스 등지에서 불교 를 공부했고 오랫동안 티베트인과 함께 지냈다.

톨텐 진파 씨는 거의 모든 행사에서 달라이 라마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그는 서양 과학자들에게 달라이 라마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서양 과학자들



◇알렌 윌러 스 산타바바라 연구소장(오른 쪽)과 톨텐 진 파씨.

의 견해를 달라이 라마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보스턴 플릿센 터에서 열린 법회에서도 달라이 라마를 보좌했다. 영국 캔버리지 대학 종교학 박사인 그는 달라이 라마의 글을 번역하는 총책임을 맡아, <뉴욕타임즈>가 선 정한 베스트셀러로 꼽힌 <윤리학(Ethics)>을 번역하기도 했다.

달라이라마 방미 이모 저모

미 지도자들에 티베트 문제 협조 호소 4만명 운집... 하버드대학 학생과 대화

70년대 이후 달라이 라마는 꾸준히 미국 등 서 방세계를 방문하고 있다. 9월 4-24일 샌프란시 스 코를 시작으로 블루밍턴, 워싱턴, 보스턴, 뉴욕을 순회하며 진행한 달라이 라마의 이번 방미 활동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첫번째는 티베트 독립 운동과 관련한 정치적인 활동이다. 달라이 라마는 8-11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 폴린 파월 국무부장관, 미 의회 지도자 등과 연속적으로 만나 티베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또 11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9·11 테러 2주년 기념행사에서 강연도 했다. 두번째는 ‘마음 탐구’와 같은 학술 행사다. 신경 과학,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참석한 이 번 학술회의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 마릴느 베르만,

프린스턴 대학 조나단 코헨, 위스컨신 대학 리처드 데이비슨, 하버드 대학 하버드 길버트, 스테판 코 슬린, 버클리 대학 대저 켈트너 등 심리학과 교수와 MIT 공대 낸시 캔워시 ‘두뇌 및 인지과학’ 교수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또 15일에는 하버드 대학을 방문, 학생들과 불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번째는 종교 행사다. 달라이 라마는 보스턴과 뉴욕 등지에서 대규모 대중법회를 개최했다. 14일 미 프로농구단 보스턴 셀틱스 홈구장 플릿센터의 법 회에는 4만여 명의 미국인이 찾아와 그의 법문을 경 청했다. 또한 브루클린에서는 티베트 사찰 기념식 에 참석, 재미 티베트인과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미국 보스턴= 강유신 특파원

동국대학교 총 동창회와 동국학원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입장

- 간학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학교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명진학원으로 출범한 동국대학교는 우리 근현대사를 이어오면서 역사와 더불어 사회의 동 량을 육성하고 민족사 발전에 커다란 자취를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무한경쟁의 대학교육환경 속에서 개혁과 변화의 속도 따라잡지 못하면서 명문 사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모교의 발전과 중흥이 동문 사회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은 현실에서 동국대학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우리 동문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 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작금의 총 동창회는 구태와 난맥상을 노정하면서 사유화, 이권화되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통을 통하여 형성된 우리 동문사회는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우리사회의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역량을 동원하여 한편으로는 동문사회의 단합과 단결을 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교의 발전과 중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하는 것이 오늘 총 동창회에 부여된 부인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총동창회는 이러한 엄숙한 자기명령에도 불구하고 구태와 난맥상을 노정하면서 특정인에 의한 사유화, 그리고 급속하게 이권화 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총 동창회의 구태와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제22대 총 동창회장 선임과정입니다.

전체 18만의 동문사회를 이끄는 총 동창회장의 선임과정은 전체동문들의 힘과 역량을 모으는 총체적이고, 합법적 절차가 존중되는 어법한 것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5월 29일 제65회 이사회의 총동창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은 합법적인 절차가 여지없이 무시되는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 황명수 전임회장의 사퇴로 진행된 전체 이사회에서 회장후 보로 유주형 동문과 이연택 동문이 복수로 추천되었음에도 사전의 각본에 의하여 다수결에 의한 신출절차가 무시된 채 유주형 동문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불법적인 해프닝이 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가 무시된 이사회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물론 여기서 선출된 유주형 동문 역시 총동창회장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불법적으로 선임된 유주형 동문은 총 동창회를 사유화, 이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총 동창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다만 그 절차상의 불법성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13일 개최된 총회의 추

대결과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사진행발안이 묵살되었으며, 총 동창회장에 불법적인 추대이후 현재까지도 회장단 조차 출범이 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주형 동문은 총동창장을 동국학원의 이사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이 용하고 있고, 학교의 각종 이권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총 동창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화하고 이권화 하고 있다는 다수 동문들이 우려에 경허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 유주형 동문은 무리한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응당 그 자격이 없는 총 동창회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동문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흠이거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동문사회의 결속에 힘을 쏟아야 하고, 모교의 발전과 중흥을 위하여 동문사회의 결속과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한 편으로는 총 동창회를 대표하여 동국학원재단 이사로서 학교의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 하여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문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 정파와 결탁하여 조계종단의 권위와 중립학교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추락시킬 목적으로 나 홀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실로 그 본분을 망각한 수치스러운 행위임을 깊이 뒤우쳐야 할 것입니다.

- 총 동창회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유주형 동문은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유주형 동문은 1999년 동국학원 이사에 선임 할 당시 총동창회 회장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공언 한 바도 있습니다.

일찍이 총 동창회 내에서도 전체 동문 사회를 이끌어갈 자질과 역량, 그리고 개인적 품성에서조차 그 자격이 의심되는 유주형 동문을 총동창회장과 동국학원 이사로서까지 만든 것은 동문들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선임된 유주형 동문이 본분을 망각하고 총 동창회를 사유화하여 동국학원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무리한 정치적 행 보를 한다는 사실은 실로 현 총 동창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총 동창회가 처하고 있는 실로 서글프고 부끄 러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전체 동문사회의 단합과 발전, 그리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계속하여 도약하여야 하는 모교를 위하여 유 주형 동문은 총 동창회장의 사임과 자기 동국학원 이사 선임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다수의 동문을 대표하여 결의하고 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조계종 중립학교관리위원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국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청렴하고 신망 있는 재가인사를 이사후보 로 추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2003년 9월 19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와 동국학원 발전을 바라는 뜻을 같이 하는 동국대학교 총 동창회 전임 부회장·동문 일동